최신 ICT 이슈

III. 빌 게이츠 설립 기후변화 투자펀드 'BEV'의 1기 투자 기업 공개

■ 빌 게이츠가 설립한 에너지 분야 펀드 "브레이크쓰루 에너지 벤처스(Breakthrough Energy Ventures: BEV)"의 1기 투자 대상 기업 목록이 보도되었음

- BEV는 빌 게이츠가 주도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펀드 규모는 10억 달러임
- 펀드 조성에는 빌 게이츠 외에 인도의 사업가 무케시 암바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전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영국 사업가 리차드 브랜슨,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소프트뱅크 그룹의

[표 1] Breakthrough Energy Ventures의 1기 투자 대상 9개 기업

기업명	주요 연구개발 기술 및 서비스 내용
QuantumScape (퀀텀스케이프)	- 많은 연구자들이 전기자동차(EV)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전고체전지(Solid-state battery)'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 전고체전지는 EV에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고출력
Commonwealth Fusion Systems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	- 고온초전도(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ity)를 이용한 핵융합로 연구
Pivot Bio (피벗 바이오)	- 기존의 질소 비료를 대체할 미생물 비료를 개발 - 질소 유출량과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기술 연구
CarbonCure (카본큐어)	- 콘크리트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기존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
Fervo Energy (퍼보 에너지)	- 컴퓨터 모델과 수평시추 기술을 이용해 지열발전 비용 절감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
DMC Biotechnologies (DMC 바이오테크놀로지)	- 미생물에서 바이오 연료 등 고부가가치를 가진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Zero Mass Water (지로 매스 워터)	- 햇빛과 공기로부터 식수를 만들어 내는 '하이드로패널(Hydropanel)'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
Form Energy (폼 에너지)	- 수 주에서 수 개월의 장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2종류의 배터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Quidnet Energy (퀴드넷 에너지)	- 지하에서 끌어 올린 물을 이용하여 수력 발전을 하는 기술을 개발 - 수력 발전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자료〉 Quartz, IITP 재정리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손정의 등 세계적인 억만 장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BEV 펀드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지난 6월에 뉴스 미디어 쿼츠(Quartz)가 "Form Energy(폼 에너지)"와 "Quidnet Energy(퀴드넷 에너지)"라는 두 기업에 BEV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번에 쿼츠는 추가로 BEV의 투자처 7개 기업을 공개하였으며, 거대 에너지 펀드의 1기 투자 대상이 [표 1]의 9개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를 원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고 함

■ **빌 게이츠가 대규모의 BEV 펀드를 조성한 이유는 소프트웨어와 달리 에너지 관련 혁신에는 더 장기간에 걸쳐 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함**

- 빌 게이츠는 BEV 펀드 조성 이전부터 다수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벤처에 대한 투자는 소프트웨어 벤처 투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함
- 에너지 스타트업들은 막대한 비용 투자를 하더라도 느리게 발전하며 아주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데, 이는 그들이 근본적인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
-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꺼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할뿐더러, 연구자들이 기업가 또는 기업 경영 방법을 배워야 하는 새내기 창업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해 줄 생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생각
- BEV의 상임이사인 로디 구이데로는 BEV는 참을성이 있고 유연한 사상을 가진 아주 독특한 펀드이며, 투자할 만한 벤처를 찾기 위해 140여 곳의 학술기관과 대기업, 과학자나 기술자와 교류를 통해 중요 기술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구축한다고 설명
- BEV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기술을 BEV에 공개하고 적어도 1년에 5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주어야 함
- 벤처 투자 금액은 개발 단계 및 필요에 따라 다르며 BEV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기업당 약 20만~2,000만 달러 사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총 1억 달러 그러니까 펀드의 약 10%가 투자되었다고 함
-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금액을 BEV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BEV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들 기업 및 유사 기업에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투자 효과는 1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BEV는 향후 다양한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1기 투자 대상 기업은 북미에

본사를 두고 백인 남성이 CEO를 맡은 스타트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적으로도 다양성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함

[참고문헌]

[1] Quartz, 9. 28, https://bit.ly/2QadXtH
[2] Business Insider, 9. 27, https://read.bi/2NQCZRZ